

영화에서 패션까지 불교로 다 통하네...

한국불교학의 '불교와 문화의 만남' 하게 워크숍

불교는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서 얼마만큼의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을까. 첨단 과학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언뜻 생각하기엔 그리 많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교로부터 연원한 문화현상은 일상이·민담·음식·의복·음악·무용·서도·건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이명래)는 이처럼 다양한 불교문화를 담론하고 재창조하기 위해 '불교와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제4회 한국불교학회 하계 워크숍을 7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하동 썩개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썩개사 강주 월호 스님의 '영화 속 불교 여행' 원광대 김수천 교수의 '사경과 서예' 원광대 윤양호 교수의 '현대불교와 禪조형예술' 한성대 이기향 교수의 '불교와 패션' 등을 포함해 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중 주목을 받은 논문 3편을 소개한다.

원광대 윤양호 교수는 '현대불교와 禪(선)조형예술'이라는 논문을 통해 불교사상을 예술적 감각으로 표현해 낸 20세기 초 선조형예술가들의 작품세계를 소개했다.

윤 교수는 '예술이 곧 수행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해 유럽의 선조형예술 붐을 일으킨 프랑스의 선조형예술의 대부 이브 클라인(1928-1962)의 불교적 예술관을 중심으로 선조형예술에 대해 설명했다.

윤 교수는 "클라인은 불교의 공사상을 '공간적 텅 빈'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통해 불교와 예술을 접목시켰으며 텅 빈 공간을 우주만물의 생명적 근원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클라인의 사상은 이후 제2세대 선조형예술가 격인 요셉 보이스(1921-1986)와 안토니 퍼피에스(1923-현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20세기 초 유럽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사회 계몽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됐다.

썩개사 강주 월호 스님은 '영화 속 불교 여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영화의 소재와 내용을 불교적 입장에서 재해석했다. 산사에 피신해 있는 조각사(조각가) 일당과



스님들 간의 해프닝을 다룬 영화 '달마야 놀자'. 월호 스님은 "조각사(조각가)를 감싸주는 큰스님과 그들을 산사에서 쫓아내려는 젊은 스님들 사이의 갈등적 구조는 '인간의 분열'을 선한가 악한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천당과 지옥이 존재하며 나와 남이 갈라지고 부처와 중생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밀 빠진 독을 연못에 던져 독에 물을 가득 채운 영화 속 큰스님의 지혜(발상의 전환)를 통해 참다운 지혜는 궁리분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심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라는 불교적 해법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윤양호 교수 현대불교와 선 조형예술

선 조형예술 붐 일으킨 이브 클라인

20세기 초 유럽사회 계몽운동 이론적 근거 돼



월호 스님 '영화 속 불교 여행'

'달마야 놀자' 속 '밀빠진 독 채우기'

'참다운 지혜는 평상심에서 나와' 상징



김수천 교수 '사경과 서예'

서예 대중화 실패 원인은 '공모전'

사경 서사재료·표현의 다양성에 주목

'사경(寫經)과 서예(書藝)'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원광대 김수천 교수는 현대인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서예의 대중화 방안을 사경에서 찾는데 주력했다.

김 교수는 △사경의 양식적 측면 △사경의 정신적 측면 △사경의 역사 등을 제시하며 사경문화 속에 담겨진 진정한 서예정신이 무엇인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서예의 대중화 실패 원인은 1922년 일제강점기에 조선미술전람회로부터 출발된 각종 서예 공모전의 폐단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공모전은 전문작가의 등용문이라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가

지고 있지만 전시용 서예로만 치달은 나머지 서예의 진로를 축소시켜 서예인들의 의식을 황폐화시키는 물론 대중들을 등돌리게 한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사경은 먹(墨) 외에 금(金泥), 은(銀泥), 자혈(刺血) 등을 사용했고 종이와 비단에 쓴 사경 외에도 판경, 석경, 와경, 옥경 등이 전한다"며 "사경은 글씨와 더불어 문양과 변상도를 결집한 장식성이 많으며 이들은 모두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사경의 서사재료와 표현의 다양성은 서예의 가능성을 확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 썩개사·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7>

홍수

태풍 에우니아와 장마전선의 상승작용의 영향으로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한반도 전역은 홍수와 산사태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딛고 일어나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불자들의 보살행이 필요한 시기다.

낙하 운동이나 천체 운동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일기예보는 매우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공기의 분자 운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기분자의 운동이 압력, 온도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지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일기예보 전문가들은 지구 곳곳에 설치된 기상측정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이를 근거로 공기의 운동을 결정하는 미분 방정식을 푼다. 풀어야 하는 미지수가 많기 때문

능력을 일반대중들에게 보여 줘야만 했을 것이다. 중국 주나라 역시 물을 다루는 솜씨가 탁월한 왕이 포진했던 고대국가다. 물을 다루는 솜씨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신화로 보충했다. 기독교의 천재들은 노아의 홍수 신화로부터 인류의 조상을 분류하고 그들의 신을 숭배한 자만이 변성한다는 근거를 만들어 냈다.

홍수는 인간의 재앙을 가져다 줬지만 토목공사라는 기술의 발전의 동기를 가져다 줬다. 댐과 같은 큰 공사를 위해서 체계적인 기하학이 발전했다. 기하학의 발전은 17세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뉴턴의 만유인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도 홍수를 역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홍수라니...

자연 재앙은 인류 발전의 부산물 아닌가

에 수퍼 컴퓨터를 이용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기상 현상까지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반도는 산이 많은 지형이라서 일기를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다. 태백산맥이 이어져 있는 강원도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공기와 동해의 해상 조건이 마주치는 곳이므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이변이 자주 일어난다.

인류의 역사는 물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상력이 큰 시인들은 홍수에 관련된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 내었다. 또 인더스-겐지스 강, 황허-양자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강 유역이 모두 인류의 문화가 발달한 곳이므로 인류는 홍수와 싸우기도 하고, 적응도 해가며 살아왔다.

통치자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지도자들도 홍수를 예측하고 이를 물리칠

투시켜 사람을 구함으로써 우무벨라 카사파를 무료 풀게 한 내용이 나온다. 세 가지 피하고 싶은 재난 중 수재, 화재 그리고 풍재에서도 홍수는 피하고 싶은 재난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홍수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불과 같은 재앙이 더 크다고 설하셨다.

과학기술이 자연을 지배하는 시대에 홍수 피해를 보면서 자연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본다. 더욱이 자연 재앙조차도 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부산물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 등이 자연 기상을 바꾸고 인류가 추구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자연 기상을 더욱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마음의 재앙을 제어하는 방법이 더 큰 재앙을 막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문병성

"삼국유사는 대안史書 결정판"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중심서대 바이건성 교수 주장

“삼국유사”는 7세기 무렵 신라와 당나라의 문화교류에 대한 새로운 사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중국사서에 결여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일연학연구소(소장 상인) 주최로 7월 20-21일 양일에 걸쳐 '일연선사와 삼국유

사'를 주제로 열린 일연선사 탄신 8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중국 심사사범대 바이건성(裴建成) 교수(사진)는 <삼국유사>에 기술된 나당관계를 고증을 통해 검토했다.

특히 바이건성 교수는 <삼국유사>에 나타나 있는 선덕왕지기삼사조(善德王知己三事條)를 중심으로 양국의 외교관계에 대한 증중적 접근을 시도했다.

바이건성 교수는 <삼국유사>권2의 '표



훈대적조'와 중국의 사서 <당대음다풍기(唐代飲茶風記)>의 내용을 바탕으로 7세기 무렵 신라에 차(茶)를 보급한 것은 도당 유학승이었다고 밝혔다.

바이건성 교수는 "선덕왕 시기에 신라는 차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했으며 당나라 '안사의 난'이 일어난 직후 도당 유학승들에 의해 신라에 차가 보급되기 시작했다"며 "이 때 신라에 보급된 차는 대부분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바이건성 교수는 또 "선덕왕지기삼사조의 내용 중 '꽃을 그렸는데 내비가 없는 것은 당나라 왕이 내가 바이건성우자가 없는 것을 희롱한 것'이라고 말한 선덕여왕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는 없고 <삼국유사>에만 실린 것은 훗날 당나라에 대한 반감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바이건성 교수는 "<삼국유사>는 편년체나 기사본말체 등의 일반적인 역사서술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설화나 구전을 통해 상층 기록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삼국유사>는 정통 사서에서 내세운 원리를 대항할 수준이나 발전된 다른 원리로 바꾸고자한 대안사서의 결정판이다"고 설명했다. 노병철 기자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입교에 의한 윤회를 받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절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단 페이지를 찾지 아니 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간 만물지중에서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서 유인이 가장最貴 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齋師님께 집법하신 의식집이 따로 참으로 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兩三)입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신 모든 스님들께 소송 법정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송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편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에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編·著者 法眞 辛承都

제1장 시 식 편	제2장 장 의 편	제3장 다 비 편	매 장	埋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處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정청 영산대재 괘불이온 권초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심왕상칠제(修往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제7장 靈魂結婚禮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04-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